

이설자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 작품연구논문

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조형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조 이 영

# 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조형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설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조 이 영

# 인준서

조이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간다. 원초적인 울음, 웃음, 몸짓부터 언어와 최첨단 통신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의사표현을 하고 소통(疏通)의 장을 열어 인간관계의 밑바탕을 마련한다. 이를 시작으로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위해 노력한다. 의사소통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경험, 생각들을 주로 문자나 언어를 통해 표현한다. 그 중에서도 ‘조형예술가(造形藝術家)’라 불리는 이들은 ‘미술(美術)’이라는 예술적 장치를 이용해 좀 더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

이들은 아주 개인적인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문제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할 것이며,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그 성과물을 대중에게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소통과정을 통해 얻어진 영감(靈感)은 창작활동의 바탕이며, 다시금 연구 성과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이다.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은 시대에 따라 양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들이 남긴 ‘작품(作品)’은 시대를 넘어서 감동을 남기며 문명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다른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은 미술의 영역 안에 있는 ‘그림’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길 희망하며, 무언가를 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

며, 그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들 사이에 문제는 없는지, 더 나아가 세상과 무리 없이 의사소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문명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인간의 존재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의사소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통방식의 차이로 생겨나는 갈등의 원인을 알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작품화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2
1. 작품에 내제된 주제의식 .....	2
1) 의사소통의 의미 .....	2
2) 갈등의 원인과 해결 .....	4
3) 잠재된 갈등의 표출과 정화(淨化) .....	7
2.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 .....	11
1) 화면의 구성 .....	11
(1) 정면의 얼굴 .....	11
(2) 형태의 단순화 .....	12
(3) 단독으로 존재하는 형상 .....	12
2) 재료연구 .....	14
(1) 안료의 사용법 .....	14
(2) 채색의 방법 .....	16
3. 작품분석 .....	17
III. 결론 .....	31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마주보다	68×57cm	장지, 분채, 먹	2006년	17
<작품 2> 마주보다	73×91cm	장지, 분채, 붕채	2006년	19
<작품 3> 마주보다	92×124cm	장지, 분채, 먹	2006년	21
<작품 4> 마주보다	145×112cm	장지, 분채, 붕채	2006년	23
<작품 5> 마주보다	100×82cm	장지, 분채, 먹	2006년	25
<작품 6> 마주보다	130×162cm	장지, 분채, 붕채	2006년	27
<작품 7> 마주보다	92×70cm	장지, 분채, 붕채	2006년	29

## 서론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화면의 구성과 재료의 연구를 통해 표현방법을 극대화하여 작품 속에 내재된 주제의식의 표출을 목적으로 한다.

작가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창작 행위라는 생성의 과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며, 이는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고 화면 안에서 다양한 재료와 표현 양식에 녹아들어 자신의 독자적인 미의식을 발현한다.

작품의 창작 동기는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비춰진 형상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는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거울 앞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는 과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문에서 출발하였다.

문명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개인이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더불어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고민의 결과를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작품에 내재된 주제 의식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의미를 서술하고 대화의 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행위가 잠재된 갈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밝히려 한다.

두 번째 장은 주제를 발현하는데 어떠한 표현방법을 모색하였는지 화면의 구성과 재료연구로 나누어 정리하고, 특히 기존의 일반적인 채색기법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도한 안료의 사용방법을 통해 제작된 작품을 마지막 장에서 조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론

### 1. 작품에 내재된 주제의식

#### 1) 의사소통의 의미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들은 일종의 의사소통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몸짓이나 표정, 말이나 문자의 상호작용으로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대로 이해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기란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발전적인 인간 관계 형성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소통 능력을 배양한다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행동양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의사소통(意思疏通, communication)’이란 화자(話者)와 청취자(聽取者) 간의 대화를 말하며,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의 전달과 상호유통 내지 상호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달자(화자)가 수용자(청취자)에게 사실, 생각, 감정을 알려주고 의사교류를 통하여 공통적인 이해를 이룩하며 수용자의 생각, 감정, 행동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다시 말해서, 상대에게 고정된 의미(정보)가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교감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의미와 정보들은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의 동기를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어떤 욕구를

---

1) 홍경자, 『의사소통의 심리학』, 학지사, 2007, p.37.

충족하려는 의도인 대인동기(對人動機)를 의미하는데,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고, 격려하려고, 상대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관심을 보이려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등등의 목적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욕구와 충족이라는 동기의 힘은 모든 의사소통의 바탕에 깔려 있으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sup>2)</sup>

우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상호간에 원하는 바가 전달되고 수용되면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이 목살되거나 유린당할 때 불만족, 좌절감과 더불어 갈등적 관계와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sup>3)</sup>

만족감으로 마무리된 의사소통의 결과는 다음에 이어지는 행위에도 관여하며 인간관계의 유지와 새로운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공동체의 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 욕구의 충족이 좌절되면 불만, 불행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갈등은 분쟁을 낳고 인간관계라는 구조물을 흔들고 무너뜨려,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데 문제를 야기한다. 문제가 반복되면 개인의 자아가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나아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어렵겠지만, 원인을 찾고 개선해 나간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

2) G.Burton & R.Dimbleby,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이주행 외6인 역, 한국문화사, p.80.

3) 홍경자, 전게서, p.10.

## 2) 갈등의 원인과 해결

순조롭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히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라는 푸념을 쏟아낸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은 대화의 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에 문제가 있어서 라기 보다 상호간에 비효율적인 대화 태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무조건 부담스럽게 느끼고 관계 맺기를 회피한다. 주로 일방통행식의 대화를 하며 최소한의 의사교류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대화기술이 서툴러서 간단명료하게 자기의사를 전달하지 못 하는 사람도 있다. 불투명한 말투와 화술의 부족은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왜곡시킨다.<sup>4)</sup> 이는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지마저도 의심하게 만들어 관계유지를 어렵게 한다. 더불어 언어적(말이나 문자) - 비언어적(몸짓이나 표정)으로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인 표현, 즉 ‘혼합 메시지’도 진의(眞意)를 알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sup>5)</sup>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메시지의 언어적 내용을 보충하고, 모순되게 하고, 강조하고, 조절하고,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없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성으로 듣거나 임의로 해석한대로 반응을 보내거나 자기에 유리한 내용만 경청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sup>7)</sup> 무성의한 태도는 상대의 대화 의지마저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여려는 마음이 짐을 가져야 하며 이는 의사소통의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4) 상계서, p.51~53.

5) 상계서, p.54.

6) Kathleen K. Reardon, 『대인의사소통』 임철성 역, 한국문화사, 1997, p.31.

7) 홍경자, 전계서, p.56.

과거 경험에 따라 오해나 왜곡된 인지 또는 그릇된 지각 때문에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지레짐작하기’에 해당한다.<sup>8)</sup> 의사를 표현할 때 미리 상대의 반응이나 의견을 지레짐작하여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고 변질된 내용을 전하거나 왜곡된 주관에 따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서 자유롭지 않을 만큼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주관적 견해로 해석된 의미는 또 다른 오해를 낳으며 심각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대화하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임을 간과한 결과이다.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쉽고도 중요한 점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과정이 수행되지 않으면 소통을 포기하거나 타인의 신념에 쉽게 휘둘리게 된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태도를 개선해나간다면 만족스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이나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만 행동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잠재적인 갈등 상황을 무시하면 갈등이 지나가 버릴 것으로 기대하며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종종 문제들을 원만하게 넘어가려고만 하고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는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갈등은 다른 형태로 다시 출현하게 된다. 또 다른 해결방법으로, 갈등에 관여한 사람이 자신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이런 긴장 완화 방법이 효과적일 때가 있지만 이 역시 회피의 한 가지 형태에 불과하다.<sup>9)</sup>

문제 해결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갈등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직면(直面)이다. 직면은 상당한 용기와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수월치 않은 행위이다. 해결책으로 회피의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할

---

8) 상계서, p.58.

9) G.Burton & R.Dimbleby, 전계서, p.332

수 있다.

직면의 방법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갈등을 싸움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갈등의 당사자들은 어느 한쪽이 불가피하게 승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느 쪽도 자기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서로 합의함으로써 갈등을 종결시키기도 한다. 이런 방법은 원하는 일부만 갖고 일부는 내어주는 일종의 타협에 지나지 않는다.<sup>10)</sup> 타협은 갈등 상황의 종결을 의미 할 뿐 완전한 해결로 보기 어렵다. 해결한다는 이유로 자기주장이나 의사가 거부되거나 일부만 수용되었기 때문에 불만족의 요소가 남아있게 된다.

가장 이상적인 직면의 방법은 승승 전략(勝勝戰略, win-win strategy)이다. 이 관점에서는 갈등을 이겨야하는 싸움이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간주하며, 아무도 완전히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의 여러 요인을 규정하고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상호간에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발견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새로운 합일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도 이기거나 지지 않으며, 각자가 갈등 해결에 동등하게 기여한다.<sup>11)</sup>

승승 전략은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인간관계에 기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만족감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며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을 하게 한다.

---

10) 상계서, p.332~333

11) 상계서, p.333

### 3) 잠재된 갈등의 표출과 정화(淨化)

지식의 교류보다 감정의 전달과 교류가 주를 이루는 의사소통이 인간 관계의 형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인간이 감성적 소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을 표출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요소가 치유되면 그 관계는 한층 더 견고해진다.

잠재된 마음의 상처는 감정적 실패를 경험하면서 형성되며, 이것이 반복되면 종래에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이르게 되며 몸과 마음이 피폐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기도 하는데, 온전히 독자적으로 만든 감정이 아니라 주변사람들과 환경이 지배하는 관계 속에서 생성된 것이기에 혼자서 치유하기는 힘들다.

자신의 상처를 보이는 것이 자존심을 꺾는 행동이라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어떠한 긍정적 해결도 얻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몸에 병이 있는지는 병증이 드러나야 알 수 있고 증상의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해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듯이 심리의 치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사소통은 개인마다 나름의 이유를 갖고 이루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이던 궁극적으로는 자기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만족감은 새로운 일과 관계에 대한 의욕을 높이며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 내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만, 불안, 아픔, 고통으로 점철되는 감정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고 씻어내어야 한다.

본 작품에는 숨겨두었던 감정을 쏟아내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즉, 창작 행위를 통해 나의 내면과 소통하면서 자아의 문제를 드러내어, 본심(本心)을 읽게 되고 나아가 타인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함이다. 또한 솔직하게 표현한 감정이 작품을 통해 감상자에게도 전달하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화면에 가득한 대칭형의 얼굴은 마음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며, 비춰진

모습들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형상들은 본인의 감정을 가감 없이 반영한 모습이며,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어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이미 갈등의 단계를 넘어 정화된 편안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를 따르고자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않는다.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일을 처리하여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며, 상처받은 심정을 달래지 못해 고민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려 서먹한 관계를 만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지만,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들이다. 이런 유쾌하지 않은 감정과 기억들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생의 즐거운 면만을 보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려 노력했던 표현주의 작가들처럼 마음에 남겨진 크고 작은 상처를 그대로 내보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재현하기보다는 사고한 것을 나타내는 데서 회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정신에 내재한 갖가지 의식과 무의식을 어떤 이미지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으며,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거나,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으나 깊숙한 잠재의식에서 자아를 괴롭히며 분출되는 충동을 솔직하게 묘사하기에 이른다.<sup>12)</sup>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에드바르트 뭉크 (Edvard Munch, 1863-1944)는 그가 작성한 ‘생 클루 선언문’ 초안에 ‘내가 그리는 그림은 살아있는 생생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숨쉬고, 느끼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어야 한다...살덩어리는 형상을 담아낼 것이고 색깔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sup>13)</sup> 라고 써 넣어 자신의 미학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고 작품을 통해 자신을 망설임 없이 고백하고 있다. 죽음과 병마로

12) 김광우, 『뭉크, 쉴레, 클립트의 표현주의』, 미술문화, 2003, p.21.

13) Edvard Munch, 『뭉크뭉크』, 이충순 역, 다빈치, 2005, p.46.

얼룩진 어린 시절에 대한 경험과 불안은 내면세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낳았으며, 그가 끊임없이 그려낸 불안과 절망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것과 많이 닮아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는 대표작 <절규>에서 절정을 이룬다.

극도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양식을 대표하는 에곤 실레(Egon Schiele, 1890-1918) 역시 자신의 내부에 집거하며, 내면세계에 대한 환상으로 그림을 그렸다. 자화상을 과장되고 때로 비정상적이기까지 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여겼으며, 매우 비자연적인 색채를 사용하였고 강력한 심리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거친 선을 이용하였다.<sup>14)</sup>

인간에게 있어 자아와 만나는 것은 타인과 마주하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벌거벗은 내면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함이 자아와 대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레는 이런 불안감을 숨기기보다 한층 과장하여 자신의 고통과 인간의 본성을 여과 없이 묘사하였다.

능수능란하게 뒤틀린 선과 거친 색조에서 주관성과 생에 대한 비판이 묻어나기는 하지만, 그의 그림은 조절되고 원칙이 있으며 아주 세련된 미감을 드러낸다.<sup>15)</sup>

에곤 실레의 왜곡된 인물은 오스카 코코슈카 (Oskar Kokoschka, 1886-1980)에 비하면 한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생애를 통해 현대 표현주의의 정수-감정의 힘, 괴로움, 기쁨, 인간과 자연의 내면적 성질들을 깊이 느끼는 민감성-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작품은 특유의 자유스러움과 신선함 그리고 과감함을 유지했다. 색채는 보다 격렬하고 성격묘사는 때때로 회화(戲畵)와 비슷할 정도로 강렬하다.<sup>16)</sup> 그는 인간을 묘사하는데 상투적인 견고한 수법을 쓰지 않았으며, 불쾌하리만큼 현실에 정직한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는 조화의 미가 아닌 불편함의 미학

14) Frank Whitford, 『에곤 실레』, 김미정 역, 시공사, 2005, p.25

15) 상계서, p.26.

16) H. H. Arnason, 『현대미술의 역사1』, 이영철 외6인 역, 한국색채문화사, 1991, p.146~147.

을 발현한다.

이들이 고민하던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찰은 본인이 지향하는 바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을 따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 연유로 갈등의 산물로 남겨진 상처들을 그저 기억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작품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투영함으로써 외부로 끌어내는 과정을 피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에는 마음상태에 따라 다르게 선택한 여러 가지 색으로 화면을 구성하였고, 이런 색을 통한 감정의 표현은 내면을 정화하게 된다. 억울하고 분한, 갈팡질팡하며 갈 길을 정하지 못하는 깃털 같은 마음의 흔들림, 서글프고 안타까운 감정의 파편들을 풀어놓은 화면은 자극적인 색면의 대비와 거칠게 움직이는 선들로 시선을 붙잡고 있다. 거칠면서도 밀도를 높인 색면은 주로 강하게 대비되는 색조를 병치시켜 구성하고, 면을 가르며 지나가는 선은 부분적으로 굵어 낸 듯한 질감이라 느껴질 정도로 선명하고 강한 느낌을 수반하고 있다.

색을 칠하고 면의 흐름을 따라 선을 긋거나, 그 흐름을 깨는 선을 표현하는 행위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며, 이것으로 얻어진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쾌감을 안겨준다.

이렇게 창작된 작품은 자아를 발견하려 노력한 결과의 형상이며, 외부와 의사소통하는 도구이자 목적이 된다. 이것은 주변과 어우러져 교류하는 발판이 되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 2.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

### 1)화면의 구성

#### (1)정면의 얼굴

작품의 소재는 주제를 대변한다. 작가에게 있어서 적절한 소재의 선택은 어려운 과제이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선택된 소재는 어떤 표현방법에 용해되는가에 따라 주제의 발현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얼굴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되었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을 화면에 배치하였다. 이런 구성을 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태도의 반영이다. 정면으로 상대를 마주보는 행위를 시각적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몸의 방향이 마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개를 돌려서라도 이야길 하게 된다. 얼굴을 정면으로 보여주어야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대화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긍정적인 태도이기도 하며 상대방의 반응도 자세히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은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이 공존하며 두 가지의 용화로 의미가 전달되거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특성상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세는 정보의 공유와 공감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적극적으로 갈등에 맞서는 ‘직면’의 자세를 의미한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발전적인 관계를 꾀할 수 없게 된다. 회피도 타협도 아닌 적극적 해결의 열쇠인 ‘직면’의 중

요성을 정면의 얼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 (2) 단독으로 존재하는 형상

의사소통은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는 정면의 얼굴이 단독으로 존재한다. 이런 구성은 화면 밖의 감상자를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장치로서 작품과 감상자를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만약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재현하듯 표현했다면, ‘마주보고 있구나.’ 혹은 ‘대화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상황의 인식만으로 감상이 끝날 수 있다. 물론 감상자의 태도까지 작가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수동적이고 일차적인 상황은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관망하지 않고 작품을 대면하는데 좀 더 적극성을 띤 능동적인 태도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형상은 의사소통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기에 누구든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평면에 머무는 형상과 입체의 실체가 조우(遭遇)하기를 바라며, 사람과 교류하듯 작품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 (3) 형태의 단순화

정면을 향한 얼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구조에 근거하여 단순한 형태로 재구성을 하였다. 단순화 시킨 표정을 제시함으로써 형상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단순함 안에는 모호함과 불확실한 표정이 공존하고 있으며 모호함이 주는 막연한 감성은 의문을 증폭시킨다. 재구성된 형태는 색의 대비, 조화, 혹은 색면의 비율과 상호작용을 하며 작품 안에 존재하는 인물의 감정을 드러낸다. 조형요소의 변화와 조화는 단순화된 형태를 그저 단순한 것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이미 추상미술을 이끌어갔던 많은 작가들에 의해 전개된 바가 있다. 그들의 영향력은 현대의 작가들에게까지 미치고 있

으며 본인의 작품도 형식적인 면의 일부를 따르고 있다.

보링거(worringer 1881~1965)에 의하면 추상미술의 본질은 감각으로 지각되는 가시적 현상이 실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가시적 현상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실재를 찾으려는 인간의 실재적 용기에 의해서 가능한 고차원적인 정신성의 소산으로 보고 있으며,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식의 재현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하는 재현이라고 보고 있다.<sup>17)</sup>

여러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알베르토 자코메티<sup>18)</sup>가 형태의 변화를 피하던 초기의 작품인 단순한 입방형(立方形)의 돌로 사람의 두상(頭像)을 제작한 <얼굴 - 1928년경, 시립미술관, 암스테르담.>이라는 작품에 공감이 간다. 단순화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형태를 구현한 대범한 시도였다.

그는 심지어 눈을 표현하기위해 구멍을 뚫어 돌의 표면을 상하게 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단지 두 개의 단순한 형태로 움푹 파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혀 비슷하지 않은 것 속에서 놀랄 만큼 비슷한 모양을 발견해내는 것이야 말로 속눈썹까지 붙여 놓은 밀랍 인형을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체험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사실상 그의 작품은 그러했다.<sup>19)</sup>

형태의 단순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개개인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지식에 영향을 받는다. 보이는 것에 완전히 의지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나머지를 떠올리기 위해 나름의 방식을 찾게 된다. 이 방식은 너무도 다양해서 작가가 범위를 정해 놓을 수도 없다. 단순화는 상상의 범위를 초월할 수 있게 도와주며 실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형상으로부터 얻은 감상보다 더 한 감동과 즐거움이 따라온다.

작품은 작가의 물음이다. 내 작품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무엇이

---

15) 고은경, '채색을 통한 야경의 심상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2006, p.3.

18) Alberto Giacometti, (스위스 태생, 1901~1966) - 1920년대에 그의 작품들은 립시츠와 로랑스의 큐비즘 조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원시미술과 선사시대 미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였다. 1920년대 말에는 파리 초현실주의자들의 궤도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몇 해 동안 그들의 이념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H. H. Arnason, 전제서, p.336.

19) E. H. Gombrich, 『서양미술사下』, 권민 역, 열화당, 1995, p.564~565.

있을까? 라고 작자는 묻는 것이다. 작가가 묻는 것은 결국 작품이 묻는 것이다.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sup>20)</sup> 작가가 원하는 답이 있을 테지만 그 물음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답은 없다. 답을 하는 것은 완전히 감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작품을 감상한 이들 만큼의 다양한 답을 얻게 되며 이것은 새로운 창작활동을 유도하는 채찍이 되어 돌아온다.

## 2) 재료연구

### (1) 안료의 사용법

작품에 쓰인 안료는 주로 분채라 불리는 수간안료(水干顔料)이다. 아교로 반죽해 굳힌 붕채, 천연석을 갈아서 만든 석채, 접시물감이나 튜브물감 등 다양하지만 사용의 편리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분채를 선택하였다.

색상이 선명하고 입자가 굵어 피복력이 높으며 아교물의 양, 색의 농도 등 작가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전문가에게는 필수적인 재료이다. 또 과손의 염려가 없고, 원료 상태로 아교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변질이 없어 보존, 보관이 용이하고 다량의 색을 사용 할 때는 붕채에 비해 오히려 노력이 적게 든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말하자면 대작(大作)에 적합한 재료이다.<sup>21)</sup>

보통은 분채를 아교물에 개어 원하는 농도로 조절하여 화면에 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인의 작품은 분채를 가루인 상태로 종이에 손으로 비벼 색을 입힌 후 아교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채색하였다. 기존의 채색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미감과 질감을 얻고자하여 시도하게 되었다.

20) 와타나베 마모루, 『예술학』 이병용 역, 현대미술사, 1994, p.61.

21) 조용진, 『채색화기법』, 미진사, 1994, p.54.

이 방법은 기존의 데이터를 찾기 어려웠으며 다소 생소한 방법이라 나름의 실험을 거쳐야 했지만 재료를 다루는데 규제가 없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우선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종이의 마모 정도를 조절 할 방법을 마련해야 했다. 기본적으로 아교반수의 과정을 거쳐야만 마모의 정도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종이는 2배접이나 3배접의 장지(壯紙)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안료마다 경도(硬度)의 차이가 있어서 비비는 강도는 안료의 상태에 따라 조절한다. 그리고 종이의 결을 살려 비비면 거의 마모가 생기지 않는다.

안료는 손으로 만져보면 기름진 것과 마른 것으로 나뉘는데, 제조 회사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주로 색의 종류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적색이나 황색 계열의 안료는 기름지며 청색과 흑색 계열은 건조하다. 기름진 안료는 비비는 과정에서 한 군데에 뭉치는 경향이 있어 넓게 펴 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바르고 나서 마른 붓을 이용하여 펴 주면 고르게 바를 수 있다. 건조한 안료는 이런 점에선 용이(容易)하기는 하나 아교를 바를 때 많이 묻어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분채는 미리 갈아놓아서 사용하지 않아도 비벼 바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서지거나 갈린다. 덩어리 진 것은 마치 파스텔을 사용하는 것처럼 선을 긋거나 마르고 거친 느낌의 면을 표현할 때 꼭 필요하므로 갈지 않고 사용하였다. 다만 균일한 면의 표현을 할 때에는 손가락으로 적당히 부숴 사용하였는데, 너무 고운 입자는 쉽게 날려 아교를 칠하는 과정 중에 잘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아교는 보통 분채를 개어 쓸 때보다 진한 농도로 사용한다. 안료의 고착을 위해 약 2~3배의 농도로 사용하며 따뜻한 상태에서 발라야 잘 스며든다. 이때 사용하는 붓은 색의 종류에 따라 철저하게 구분 하여야 의도하지 않은 색의 섞임을 막을 수 있다.

## (2) 채색의 방법

작품의 대부분은 장지에 아교반수를 하고 먹이나 붕채로 바탕을 칠한 후 분채로 채색하는 과정을 따르고 있다.

작품에 쓰일 주조 색을 먼저 화면위에 흠뿌리는 방법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뿌려진 안료를 비벼 색을 편 다음 종이의 표층으로 밀어 넣는 느낌으로 고르게 입힌다. 기본적인 색조가 형성이 되면 아교를 녹여 따뜻한 상태에서 안료를 펴 바른 방향을 따라서 칠 한다. 이를 무시하여 바른 면 붓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묻어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자국이 생긴다.

아교물을 바를 때 예는 항상 제작 초기에는 진한 듯이 쓰고 점차 완성해 가면서 약하게 써야 물감의 박리가 생기지 않는다. 22) 이런 이유에서 진한 농도부터 먼저 바르고, 색을 덧입히면서 조금씩 농도를 낮추고,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여 마무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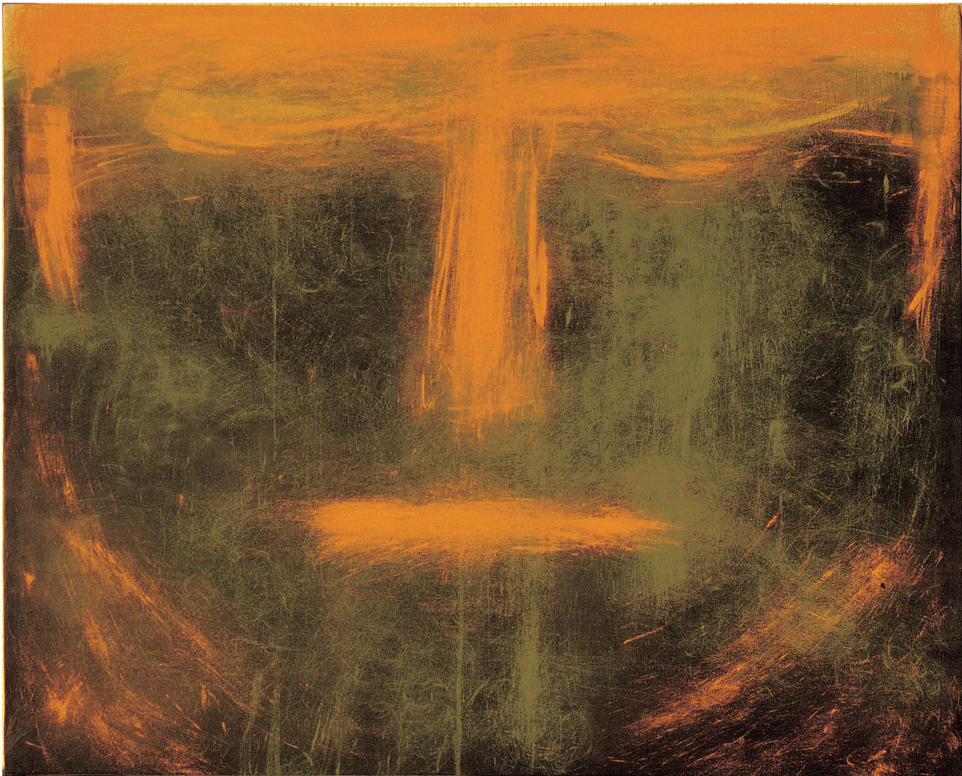
몇몇 작품은 지우개를 이용한 닦아내기도 하였는데, 아교가 다 마른 후 밑색을 드러나게 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였다. 젖은 상태에서 물로 닦아내는 방법은 종이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고 여러 겹의 층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찾던 끝에 부드러운 고무지우개로 닦게 되었다. 이 방법은 넓은 면적에 쓰이지는 않고 작업의 마무리나 수정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채색이 두껍게 된 상태에서 지우기 때문에 종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한 겹의 층 정도만 닦아내므로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안료를 손으로 비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색 기법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연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장기간 처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균열이나 박리가 심하게 생기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아쉬운 점이다.

---

22) 상계서, p.98.

## 작 품 분 석



<작품 1>

## 작품 1

마주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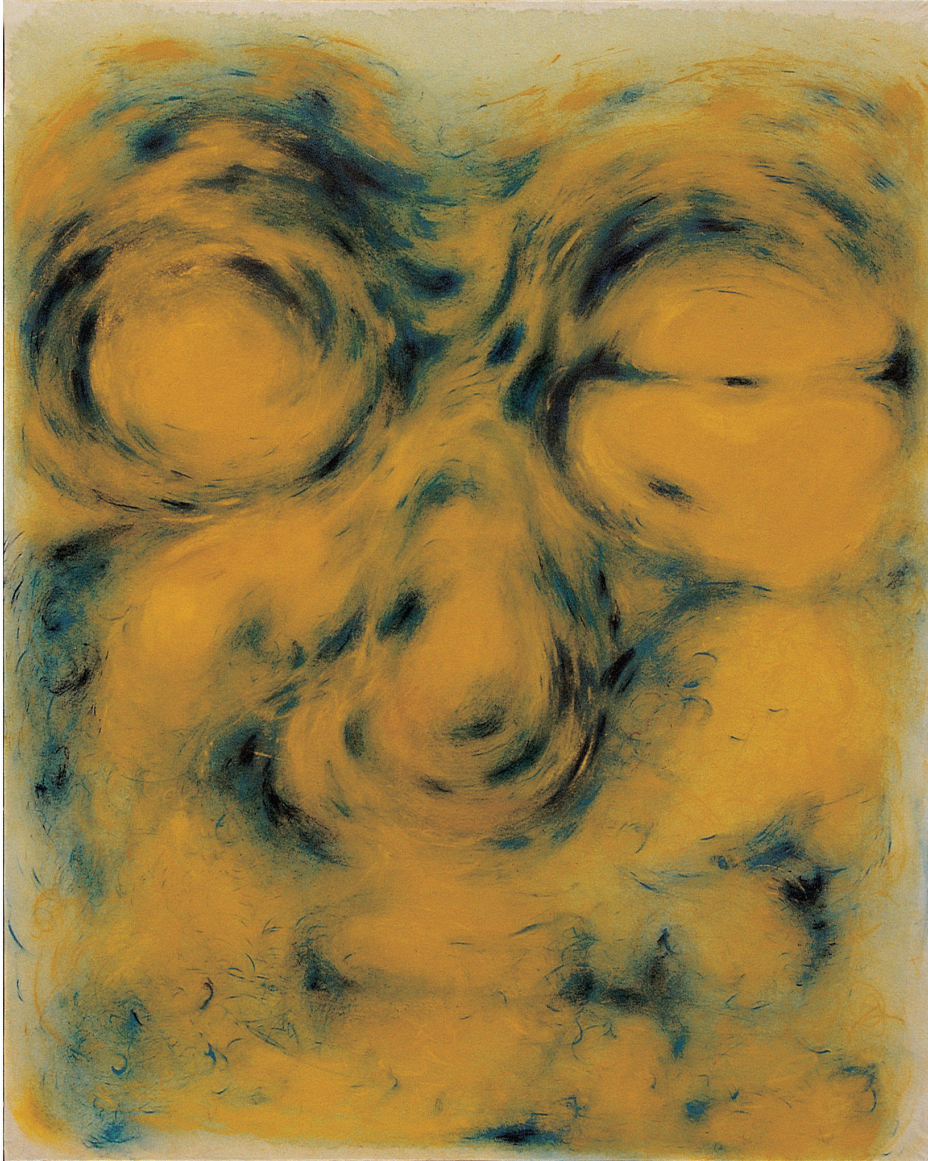
68×57cm

장지, 분채, 먹

2006년

마음속 한 귀퉁이에 자리한 고통스런 묵은 감정들을 모두 토해내고 싶을 때면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찾게 된다. 가장 의지가 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면 그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부처와 같은 깨달은 존재에게 의지하기도 한다. 그 앞에선 가리고 숨길 것이 없이 솔직해지기 때문이다.

아무 말이 없이 정면을 향한 이 얼굴은 다문 입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 콧날의 수직으로 내려 그은 선과 입의 가로지르는 선이 대조를 이뤄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먹을 입힌 바탕에 등황(燈黃)과 황초(黃草)의 대비가 확연해 입매를 더 돋보인다. 말없이 나의 녀두리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어주고 마음의 정화에 이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작품2>

## 작품 2

마주보다

73×91cm

장지, 분채, 붓채

2006년

자신의 의사를 다른 이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갈등이 많으며 결정도 쉬이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은 마음이 여리거나 지나치게 신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너무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의 말한 마디로 상대가 상처받을 것을 미리 염려하여 분명하게 전해야 할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한 쪽 눈은 실눈을 뜨고 다른 한 쪽은 명확하지 않은 눈매를 갖고 있는 이 얼굴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화면 안에 흐르는 곡선들은 거칠고 경계가 없이 끊어지다 다시금 이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주조색으로 쓰인 황황토(黃黃土)는 감(監), 신교(新橋)와 대조로 안정감이 깨져 갈등의 흐름으로 변해간다. 이 흐름은 명쾌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마음의 변화와도 같이 움직인다. 자신과의 소통이 서툴러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는다.



<작품3>

### 작품 3

마주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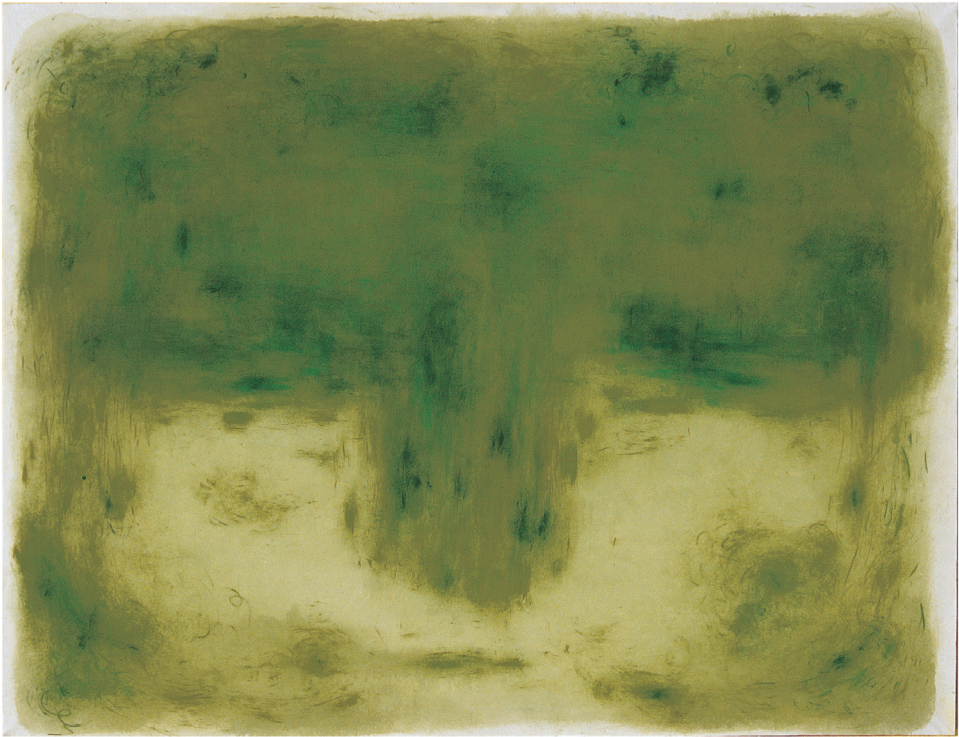
92×124cm

장지, 분, 먹

2006년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에겐 깊어지기도 힘든 상실감이 따른다. 상실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우울함으로 이어지며,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아픔을 가슴에 품고만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상처가 깊어 들어가 더 이상의 아픔은 없다고 느낄 만큼의 고통을 안고 산다. 그것을 치유하려면 아픔과 상처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숨기면 더 깊기만 할 뿐, 혼자선 이 상처를 치유하기가 힘들어서 가까운 누군가를 붙잡고 울거나, 소리를 지르던지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만 하다.

자극적인 붉은 매서(梅鼠)와 노란 미수(米樹)의 대비로 불안함이 전해지며 두 가지 색감과 낙엽다(落葉茶)의 흙빛이 만나 상실의 아픔을 더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나 엮혀있던 감정의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상처에 앉은 딱지 밑으로 새살이 돋아나듯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다.



<작품4>

## 작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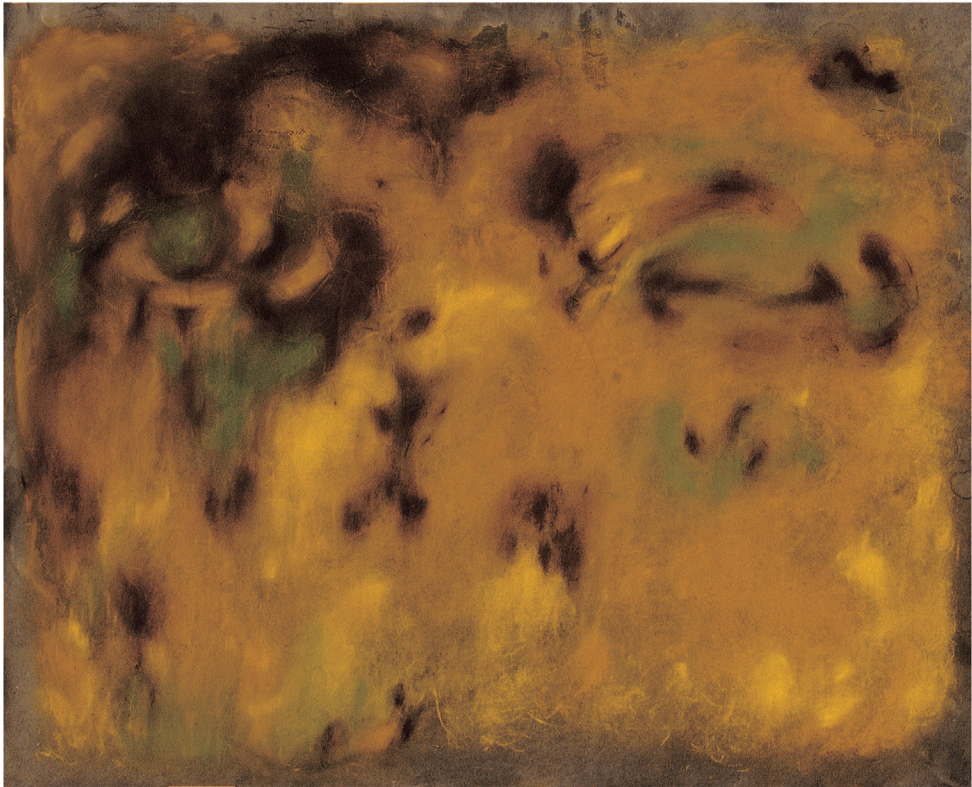
마주보다

145×112cm

장지, 분채, 붓채

2006년

화면의 얼굴은 활짝 웃고 있지는 않지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미소와 닮아있다. 엄마의 품안에서 모성의 심장 소리만으로도 편안한 잠을 청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보인다. 황초(黃草)의 초록빛이 주는 편안함이 표정에 생기를 주며,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색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어떠한 감정의 갈등도 없는 마음과 순조롭게 타인과 교류하는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 황초가 아주 적절히 쓰인 것 같다. 가로와 세로 선의 중첩이 커다란 색면을 만들고 작게 소용돌이치는 선들이 부드러움과 변화의 요소를 만들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작품5>

## 작품 5

마주보다

100×82cm

장지, 분채, 먹

2006년

명확히 구분이 되는 두 눈이 보인다. 뜬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눈이요, 감은 눈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려는 눈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상대의 진심을 보려는 긍정적인 시선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많이 의지하는데, 외형은 내면을 대변할 수 있지만 전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종종 이 점을 잊어버려 사람을 판단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선입견을 가진다.

보고자 하는 것만 보인다는 말로, 인간이 갖는 선입견에 대해 한 말이다. 이것은 소통을 방해하며 상대의 진심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게 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도 달라지며 받아들이는 만큼 관계도 변화한다. 무엇보다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심에 다가서기 위한 마음가짐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의 전체를 황토(黃土)로 칠하고 담담한 눈매는 황초(黃草)와 낙엽다(落葉茶)를 겹쳐 구성하였다. 화면 곳곳에 덧칠한 황황토(黃黃土)는 약간의 생기를 감돌게 한다.



<작품6>

## 작품 6

마주보다

130×162cm

장지, 분채, 붓채

2006년

공격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제적으로 수전하며 그대로 용하길 원한다. 의사소통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본인은 쉽게 인정하지 못 한다. 일부 특정 집단에서 힘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사표현 방식이며, 흔히 강압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는 이들이 주로 이런 성향이 강하고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기 쉽다. 자신은 타인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견(異見)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대화를 하므로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태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흑(黑)과 붉은 빛의 매노다(梅老茶)의 혼용으로 긴장감을 높이려 하였으며, 눈은 위압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크고 거칠게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시켜 표현하였다.



<작품7>

## 작품 7

마주보다

92×70cm

장지, 분채, 붓채

2006년

페인트로 칠해진 철제 대문은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 조금씩 녹는다. 붉은 녹과 청색의 페인트가 묘한 이질감을 형성하며 기이한 그림을 그려내던 오래된 대문의 이미지가 선명하다. 이 얼굴은 그것과 닮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뺨을 타고 흐르는 듯하다.

슬픔의 반영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타인과의 소통에서 얻어진 만족감의 표현이다. 아픔을 드러내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토해내어 자신을 정화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다.

군록(群綠)과 황황토(黃黃土), 등황(燈黃)의 조화가 빗물에 녹슨 대문에 새겨진 이미지를 따르고 있다. 서로 보색에 가까운 군록과 등황은 황황토를 써서 대비를 낮춰 소통을 통해 얻어진 만족이 주는 안정감을 감동게 하였다.

## 결 론

인간은 성공과 행복이라는 영양분을 동경하며 성장하는 존재이다. 이 영양분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를 키워내는 것은 실수 혹은 실패라고 불리는 것들이며,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좌절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이런 법칙은 고스란히 적용되며, 이상적인 대인관계의 형성은 풍요로운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어느 누구도 갈등과 분쟁이 생기거나 안정감이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런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 앞서 제시한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따르고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점차 가시화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공통적인 이해를 이룩하고 행동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의사의 교류는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기본적인 행위이다. 이것은 개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갈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마음을 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제시된 의사소통의 자세와 갈등 해결의 의지를 ‘정면을 향한 얼굴’로 화면 안에 구성하여 시각적으로 전환시켰으며, 또한 여러 조형요소를 이용해 형태를 단순화 하고 감상자를 작품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화면의 구성과 더불어 표현기법의 확대를 통해 주제의 발현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기존의 안료 사용법과는 다르게 건조한 상태의 안료를 그대로 채색과정에 사용한 후 고착재로 정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한편 이 채색법이 작품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기

존의 자료가 부재하여 보관과 보존의 문제는 점차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남겨진 과제를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에 임하  
도록 노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광우, 『몽크, 쉐레, 클림트의 표현주의』, 미술문화, 2003.
- 와타나베 마모루, 『예술학』, 이병용 역, 현대미학사, 1994.
- 조용진, 『채색화기법』, 미진사, 1994.
- 홍경자, 『의사소통의 심리학』, 학지사, 2007.
- Edvard Munch, 『몽크몽크』, 이충순 역, 다빈치, 2005.
- E. H. Gombrich, 『서양미술사下』, 권민 역, 열화당, 1995.
- Frank Whitford, 『에곤 실레』, 김미정 역, 시공사, 2005.
- G.Burton & R.Dimbleby,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이주행 외6인 역, 한국문화사
- H. H. Arnason, 『현대미술의 역사1』, 이영철 외6인 역, 한국색채문화사, 1991.
- Kathleen K. Reardon, 『대인의사소통』, 임철성 역, 한국문화사, 1997.

### 학위논문

- 고은경, “채색을 통한 야경의 심상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학위논문, 2006.

# ABSTRACT

## The Figurative Expression Study on Human Communication

- Based on the researcher's work -

**Jo, yi young**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People live their lives to expose their existences in various way during their life time. To use this various ways from primitive crying, laugh, motion to the most advanced communication, People express their opinion to their acquaintances and make mutual understanding which can raise the basic of human relations. Starting from this, people try to make various relations in the fence the name of the 'society', and give an effort to be faithful their duties as a member of society. Communicat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instincts which people have and it does an important role to show their identity and make human relations.

Generally, people express their emotion, experience, idea through letters or language. Among them, people who called 'the figurative artist' express themselves in more creative way to use artistic device which named 'art'.

They consider from personal every day to several events or problems in a society and give ear to their acquaintances'

discourse. After go through this process, they investigate what they say to the world, how to communicate, and this will be exhibited by people. And the inspiration which comes from this kind of communication process can be the basis of creative activity and it can make publish the other product of the study to the world. This is the role of them who act as society members.

These artists' creative activities have changed in style according to times but the production as a device of communication which they remain gives a deep impression beyond the times and make a contribution to civilized society.

Likewise other artists, I hope to have mutual understanding to the world and give an effort to say something with device the named 'picture' in the territory of an art. I consider myself and observe the people who connected with me, I want to examine what attitude do I have meet others and whether I have problems with that relations, furthermore whether I have no difficulty in communication.

This is the fundamental element in civilized society and the way to embody the existence of a human-being so I think give an effort to make no problem in this process is our share.

This thesis has an importance to understand communication in right way and to recognize the problem of inefficient communication in our circumstance and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And I am going to discuss about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make this into a product.